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1월 15일(금)  
..(음력 10월 19일)  
Пятница  
15 ноября 2019г.  
№ 44(116861)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17일은 국제대학생의 날이다.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외국학생들.

(사할린국립대 제공)

## 단신

### 부드킨 부지사 사임 표명

사할린주 세르게이 부드킨 부지사의 사임 소식이 전해졌다. 2019년 2월부터 부지사로 활약한 그는 내무정책과 보안국과 협력하는 언론 매체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부드킨 부지사는 불굴의 정신에 대한 훈장(2개), 용맹에 대한 메달(2개), 수보로브 메달, 조국 공로 훈장 등을 받았으며 정직하고 절도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리하여 현 주정부 인사 중에서 사할린 출신으로는 안톤 자이체프 부수상이 유일하게 남아 있게 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11월 까지 주 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6개국 복싱 선수들 '사할린의 청춘' 링에 출전

B급 지역 대항 복싱대회 '사할린의 청춘'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사할린과 유대인 자치구, 연해주, 하바롭스크 지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한국과 일본의 선수들이다.

대회가 11월 14일 16시에 개막되었다. 다음날 15일부터 준결승전이 열리며 11월 16일 11시부터 16시까지 결승전과 시상이 진행된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에서 보도했다. 입장은 무료이다.

### '세계 당뇨 퇴치의 날'을 맞아 대규모 행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세계 당뇨 퇴치의 날'을 맞아 대규모 검진이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할린주 일반과 학도서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행사의 주요 목적은 건강 유지와 증진 문제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당뇨병 진단의 위험성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대중화를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있다고 주 보건부가 밝혔다.

주 질병예방과 보건 치료제조센터가 모든 방문자들에게 종합 검진을 실시할 예정으로 콜레스테롤과 혈액 내 포도당 수치 분석을 비롯해 안압 검진, 심전도 검사로 심장 상태를 분석한다. 의료적 검진 분석 결과에 따라 개인적 예방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는 3시간 동안 공복과 금연 상태에서 진행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당뇨병 예방에 따른 개별 상담은 시 제2, 제4 보건소의 내분비과 의료진이 진행할 예정이다.

## 연방의회 카라신 상원의원, 사할린방문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연방의회 상원 그리고리 카라신 의원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오하, 노글리키, 코르사코브 구역을 방문하였다. 각 지방자치지역에서 상원의원은 주민, 부관, 사회활동가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후 사할린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와의 면담으로 출장 일정을 종결했다.

이번 사할린 지역 방문은 사할린주 국가 집행부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긴 방문이었다.

"상원의원께서 섬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기본적으로 사할린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깊이 살피셨는데 나는 상원의원의 풍부한 외교 경험으로 연방 차원에서 그들에게 빠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 확신한다. 문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오하까지의 도로 건설과 북쪽 오하의 주민들을 노후주택자금으로 이주시키는 데 대한 재정 배당에 대한 것이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는 그리고리 카라신에게 언급했다.

250km에 달하는 사할린의 주요 도로 전체가 아직도 비포장 상태이다. 현재 도로 포장에 지역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2020년 5월쯤 이 도로가 연방 관할로 이전될 거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연방 예산으로 약 280억 루블리를 지원 받아 북쪽으로 향한 도로망의 아스팔트하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북쪽 주민들의 가장 첨예한 문제들 중 하나는 노후 주택으로부터 이주이다. 오하는 1995년 뱀체고르스크 대진진으로 붕괴된 주택 18만 m<sup>2</sup> 가 아직도 방치돼 있다. 카라신 상원의원은 연방 차원에서 이주민 프로그램에 이런 주택들을 포함해 문제에 대한 발의를 하겠다고 했다.

"사할린 지역에서 만남은 대단히 풍부했다. 사할린주에는 이 지역 지도부를 비롯해 현재 부족한 점들을 비평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현명한 주민들이 살고 있음을 보았다. 상원의원으로서 사할린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 - 편안한 주택, 도로의 품질 향상, 교통 접근성 향상,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의 해결을 최대한 돕도록 조정하겠다."고 카라신 상원의원이 언급했다.

사할린의 교통 접근성의 향상은 상원의원의 주요 방문 목적 중 하나였다. 상원의원은 오하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활주로를 검사하고 코르사코브 항구의 개발 전망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할린 국립대학 학생들과의 만나 코르사코브 지역 대학 캠퍼스 건설에 대하여 논의했다. 학술단지 통합구역에는 강의실, 기숙사, 체육관, 휴식처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카라신 상원의원은 연방 평의회 과학, 교육, 문화위원회 제1부 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 사할린주, 내년 사회복지 분야에 252억 루블리 배당

사할린주 사회복지부는 홀스크 구역 피오네리 마을에 위치한 <차이카> 사회복지센터를 학생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캠프지로 바꾸어 조성할 계획이며 일년 내내 연간 교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담당 기관은 이 기획안을 작성하고 감사와 승인을 마친 후 필요한 자원들을 찾아나설 계획이다.

주두마 사회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엘레나 카시야노와 사회복지부 장관은 아동 캠프는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과 빈곤층 아동들에게는 무료 이용권이 주어지고 그 외 아동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부는 아동 캠프 기획 말고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원로들을 위한 양로원 건설은 2020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규모 시설 건설은 코르사코브(2021년에 완공 예정), 노글리키(내년 착공), 사흐초르스크에도 이뤄질 전망이다. '마야초크' 사회복지센터를 위해서는 건물을 신축하고 티몹스코에 구역 킵스코에 마을에는 225석을 갖춘 신경정신과 요양원 추가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2020년에 사할린주 사회복지 분야에는 주 예산에서 총 252억 루블리가 배당된다. 2020년에는 사회복지 시설 건설 및 노동 임금, 사회적 혜택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55억 루블리가 책정돼 2019년 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 새고려신문

##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70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 2019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 참가 후기 언론의 전문성 강화, 한국 역사 및 문화 체험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2019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가 서울, 제주도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이 연수에는 중국 (4명),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나라 (6명) 동포 언론인 총 10명이 참가했다.

연수의 목적은 한국어 기사 작성 및 취재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를 통해 재외동포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 한국 내 언론사와 재외동포 언론사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사실 재외동포재단은 중국 동포 언론인들을 위한 연수를 5년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한민족을 주제로 다루는 러시아 및 CIS지역 동포 언론인들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재외동포재단 오영훈 기획이사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 연수를 CIS 기자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연수에 참가한 필자는 이미 알고 지낸 <러시이스키에 코레이찌(러시아 고려인)>신문사(모스크바)의 첸 알렌진 사장(정 알렌진)·바조라 엘사 부사장, <고려일보>신문사(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김 콘스탄틴 사장, <고려사람>사이트(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운영자 한 블라디 슬라프를 만나 무척 반가웠다. 러시아를 대표한 또 한 기자는 <러시아 고려인>신문사의 샤프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담당 김 게오르기였다. 중국 길림신문의 차영국·정현관 기자, 중국 해란강 닷컴의 대표 주성화, 원난코리아지의 안은숙 대표가 우리와 함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8박9일 프로그램은 뽐뽐하게 진행되었다.

연수프로그램은 크게 연수(강의와 한국내 언론사 견학)와 한국 역사 및 문화체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언론인에게 유익한 연수

이번 언론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이루어졌다.



강의는 언론진흥재단의 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는데 우리는 <디지털 변혁기의 한국언론>(강사 이봉현, 한겨레 경제사회 연구원 연구위원), <아이템 발굴 노하우와 기사작성법>(강사 박재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편집 DNA-뉴미디어 시대의 뉴스 편집과 레이아웃>(강사 한인섭, 한국편집연구소 대표), <보도 사진 촬영의 이해와 실습>(강사 김연수, 문화일보 전 사진기자, 연합뉴스 시니어기자), <디지털 영상제작,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만들기 1>(강사 박철우, 트루팩트로덕션 대표)를 아주 재미있는 강의만 아니라 실습 시간도 주어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정보 공유와 함께 우리 신문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충고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러시아, CIS 언론인 대부분 한국어가 약해서 통역을 통해 강의를 들어야 하니 다수 수업은 중국반, CIS반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고급 수준의 전문가들의 강연이 연수 참가자들 모두에게 힘이 되어 유익했다고 각 참가자들이 소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런 전문적 교육은 기자를 대상으로 아니라 컴퓨터 디자인, 사진기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모아졌다.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재외동포지원 전담기관으로,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에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한 교육·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숙한 한인사회를 구현하고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사업: 교육사업, 교류지원사업, 조사연구사업, 차세대사업, 한상네트워킹사업, 홍보문화사업, 통합네트워킹구축사업

사실 언론인으로서 좀 더 많은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다. 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편집장으로서 신문 디자인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회였다.

연수 목적이 재외동포 언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성공했다 본다.

또한 한국 언론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동아일보와 YTN 방송사를 견학했다.

동아일보사 건물은 우리가 머문 코리아나 호텔에서 잘 보인다. 저녁에는 다양한 색깔의 건물로 변신되어 눈길을 끌었다. 내년이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아일보사에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미술가 다니엘 뷔렌(81)을 모셔 동아미디어센터 색색옷 갈아입기 기획을 실시했다고 한다. 뷔렌 미술가는 이 작품을 <한국의 색>이라고 했다. 동아미디어센터는 이런 화려한 모습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기획을 펼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민족 신문으로 멋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신문사 중 유일하게 신문 박물관을 갖고 있다. 한 스텐드에는 다양한 세계의 신문들의 2000년도의 첫 호의 첫 지면이 걸려 있다. 수많은 신문 중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 신문도 있었다. 반가운 것은 그 신문 중 카자흐스탄의

고려일보도 있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고려일보의 사장 김 콘스탄틴이 무척 반가워했다. 동아일보를 견학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언론이 가진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YTN방송사는 뉴스 전문 TV 채널이다. 필자는 이곳에서 작년에 사할린에 다녀간 YTN의 취재팀 제작인들과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견학하면서 아나운서 자리에도 앉아보고 사진도 많이 촬영했다. 물론 방송사에 대해서도 취재했다.

또한 이 방송사가 인수한 남산 서울타워도 방문할 수 있었다. 남산 타워에 사실 여러 번 다녀간 적이 있지만 YTN 이 타워를 인수한 사실은 이번이야 알았다. 이번에 연수 참가자와 인솔자들과 함께 해 감회가 새로웠다.

### 경복궁 견학, 제주도 탐방 등 한복이 어울릴 줄 몰랐다

한민족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잘 짜여져 수업에 들어가기 전 우리 팀은 우선 경복궁 견학을 했다. 참가자 모두가 한복을 갈아입고 돌아보며 사진도 찍으면서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다. 금요일마다 경복궁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역사선생(경복궁 지킴이)의 도움으로 이날 한국 역사에 대해 좀더 알게 되었다. 왕들의 역사, 민비의 살해 등등, 아는 것도 있었지

만 모르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사실 더 많았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견학에서는 박물관 주진오 관장과의도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 박물관에서는 현대 역사가 담긴 전시물들을 볼 수 있었다.

11월 3일 일요일 수업을 마친 후 저녁에 제주도에 도착했다. 저녁은 갈치 전문식당에서 먹었는데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이었다. 길이 1미터 이상의 용기에 갈치찌개, 갈치 구이... 너무너무 맛있었다. 참가자 모두 '최고'라고 칭찬했다.

다음날 제주 일정은 재외동포재단 본사(작년에 제주도로 이전)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수프로그램을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부장 김봉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책임 진행자는 김나영 대리는 오상훈 대리와 함께 프로그램 내내 우리와 함께 했다. 오상훈 대리는 이날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재단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김봉섭 부장은 연구소통부 직원 한 분을 소개한 후 재외동포재단 부서들도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지인들과의 반가운 만남도 있었다.

가을이라 노란 곶들이 주렁주렁 열린 제주도 투어는 이날 쇠소깍, 섭지코지, 민속촌 견학으로 이루어졌다. 쇠소깍은 한라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가 제주도 남쪽으로 흐른다는 효돈천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맑은 물에서 우리는 2명씩 작은 나무배를 타보기도 했다. 병풍처럼 펼쳐진 자연이 아름다웠다. 섭지코지도 멋있었다. 제주만의 전통을 잘 간직해 꾸며놓은 제주 민속촌은 제주에서 가장 제주다운 곳이라 한다. 이곳에서는 즐거운 전통 공연도 볼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울로 올라가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3면에 계속)

## 이모저모

### 사할린 가정 '올해의 가정' 전국 경연에서 우수 가정들 중 하나로 선정

10월 30일 모스크바에서 <2019 - 올해의 가정> 전국 경연의 우승자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사할린의 부랴코브 가족은 '농촌 가정'부문에서 우수 가정으로 선정되었다.

<2019- 올해의 가정> 전국 경연은 빈곤층 아동 지원재단과 러시아 연방 노동 및 사회보호부의 공동으로 주최로 네 번째 개최되었다. 올해 경연에서 우수한 가정은 총 85 가정으로 이 중 다자녀 가정이 22가정, 젊은 가정은 16가정, 가족의 전통 계승 가정은 14 가정, 혼인한 지 50년 이상 된 황금 가족은 15가정이다.

"<2019 - 올해의 가정> 전국 경연 결승에 사할린주에서는 4 가정이 진출했다. 사할린 지역 단계 경연에서는 총 11가정이 참가했었다. 결승 진출 가정 중 사할린의 젊고 아름다운 부랴코프 부부가 '농촌 가정'부문에서 우수 가정의 하나로 선정되어 대단히 기쁘다. 지난 대회에서 사할린 참가자들은 '다자녀 가정'부문과 '젊은 가정' 부문에서 우승했었다."고 사할

린 노동 및 사회보호부 가족 정책과 과장이 전했다.

옥사나와 알렉세이 부랴코브가 가정을 이룬 6년간 자신의 농업 운영에서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 가정의 가정은 지역 우수한 배구 선수 중 하나이며 배구팀의 민간 코치이고

아내 옥사나는 어린 시절 주내 육상부 선수였고 현재는 노래 창작에 열정을 쏟고 있다. 매일 부모로서, 농업인으로서 여러 걱정거리가 구애받지 않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며 그들의 두 아들에게 건전한 삶의 방식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 부랴코브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고향 마을인 키롭스코예에서 공공 행사든, 스포츠 행사든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가정이 이룬 성과와 가보에는 <농촌 가정> 부문 우승 상장과 <2019 올해의 가정> 전국 경연에서 우수 가정의 역사를 담아 출간하는 특별 기념집이 추가되었다. 또한 온 가족이 경연의 총결산으로 진행된 시상식에 참가차 모스크바를 여행한 잊지 못할 추억이 남아 있다고 사할린 사회복지부 홍보실이 전했다.

### Сахалинская семья признана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Семья года" состоялась в Москве 30 октября. Сахалинская семья Буряковых признана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в номинации "Сельская семь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Семья год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фондом поддержки дет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водился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победителями конкурса стали 85 семей, в том числе 22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16 молодых семей, 18 сельских семей, 14 семей-хранителей семейных традиций, а также 15 золотых семей, проживших в браке более 50 лет.

— В этом году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финал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емья года -2019" вышли 4 семьи. Всего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участвовали 11 семей.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среди наших финалистов молодая красивая пара Буряковых признана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семей в номинации "Сельская семья". В предыдущих конкурсах наши участники побеждали в номинациях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и "Молодая семья", - рассказала Галина Щёктов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семейной полит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ксана и Алексей Буряковы за шесть лет семейной жизни преуспели не только в ведении собственного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Глава семьи — один из лучших волейболистов в регионе,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енер по волейболу. Оксана, в юности чемпионка области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сейчас также увлекается вокальным творчеством. .

(8면에 계속)

책 소개

# 《사할린 잔류자들: 국가가 잊은 존재들의 삶의 기록》

현무암, 파이차제 스페틀라나 지음, 고토 하루키 사진 | 서재길 옮김

### (전호의 계속)

사할린, 일본, 한국 그 어디에서도 외지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은 분명 힘들고, 국가 체제의 밖에 놓인 존재가 겪어야 할 비극이었으나, 한 편으로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길을 열어나간 주체적 삶의 궤적인 것이다.

《사할린 잔류자들》은 그들이 개척해 나간 '삶'에 주목한다. 그들을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비운의 존재로서 역사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개척한 트랜스내셔널한 생활 실천의 가능성과 창조성을 들여다본다. 전후부터 현재까지 사할린 잔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민족·다문화적 존재로서 다층의 정체성이 혼재된 생활 세계를 구축해온 그들의 삶의 면모를 살펴본다.

### 다층의 정체성이 혼재된 존재로서 살아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다

"유리코는 1946년까지 일본학교를 다녔고 집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했다. 그 뒤에는 조선학교에 다니게 되어 조선인 커뮤니티 속에 휩쓸렸고 결혼 상대 역시 조선인이었다. 이후로는 거의 한국어만을 사용해왔다. 그녀의 아이들이 학령기가 되자 조선학교는 폐교되어 러시아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아이들과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학교 교사에게서 가능한 한 집에서 러시아어를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신이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역시 언어 환경을 바꾸게 되었다."

### (3장 '영주 귀국'의 삶을 개척한 인생 100쪽)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아키코짱, 여기 앉아봐.' 어머니는 '소자'라 부르지 않았고 새삼스럽게 일본어로 말했다. 어머니는 아키코가 일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리라. 아키코는 "갑자기 일본어로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라며 늘 하던 대로 한국어로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국어로 "일본에 가려면 일본어를 공부해야 하고, 아버지는 일본에 같이 못 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키코 두 사람만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일본에 가면 재산도 있으니 행복해질 수 있어. 다른 아이들은 두고 가니까 함께 돌아가자"라며 아키코의 답변을 들으려 했다. 어린 아키코에게는 가혹한 선택이었다."

### (5장 어머니의 망향의 염원을 안고 살아가는 딸 136쪽)

"도마리에는 조선학교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모두 러시아학교에 다니게 했다. 1958년이 되자 소련 당국은 조선인에게 소련 국적 취득을 촉구했다. 나훗카의 북조선 영사관이 사할린 잔류 조선인을 자국의 공민으로 만들기 위해 한 선전활동에 대한 대응 조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때까지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국으로 귀환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여 소련 국적 취득에는 신중했지만, 요시 부부는 망설임이 없었다.

당시에 요시 부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함께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살자고 서로 맹세했다. 1957~1959년까지의 후기 집단귀환에서 대부분의 일본인 여성이 조선인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귀환될 때도 요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 (8장 도마리의 흠이 되다 203~204쪽)

사할린 잔류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다. 패전 당시 일본군이 철수하고 소련군이 전진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디도 그들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 밀항과 끝을 알 수 없는 '일방적인 잔류' 가운데 고민해야 했다. 전후에는 일본, 소련(러시아), 조선(한국) 각국의 정책에 따라, 또한 어떤 사회에 편입되는지에 따라 사용하는 '이름'을 달리해야 했고, '국적'을 선택해야 했으며, '영주 귀국'을 할지 사할린에 남을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적이 다른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기도 했다. 고정되지 않은 삶 속에서 그들은 다층의 정체성이 혼재된 존재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삶은 잔류자 2세대, 3세대에게도 이어진다.

"열 살에 일본으로 귀국한 미카의 동생 유미는 일본 학교를 다녔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도쿄에서 일하고 있다. 사귀는 사람도 일본인이고 생활 방식도 일본적이다. 엄마나 언니처럼 그녀 역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끔씩 사할린에서 방문하는 아버지나 할머니는 유미에게 한국 민족이라는 의식을 이어주려 한다. 그러나 유미에게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하다.

미카의 정체성은 유미와는 다르다. 일본 국적인 미카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지마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지만, 이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다. 장녀인 미레이는 일본 유치원에 보내지만, 러시아어를 가르치면서 토요 교실의 러시아학교에도 데리고 간다."

### (4장 세 가지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귀국 3세 118쪽)

"일본, 한국, 러시아 세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마와 이라의 멘탈리티에는 경계가 없다. 그들은 언젠가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마에게는 일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고 이라의 부모님은 일본에 있다. 다만 둘이서 양쪽 부모님을 모두 방문하면 서부터는 한국의 생활 방식이 러시아와 가깝다고 차츰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러시아인이라는 의식이 각인되어 있다.

사할린 잔류자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귀국 정책의 차이 때문에 사할린의 일본인과 한국인 가족이 러시아, 일본, 한국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 속에는 이들이 각국의 귀국 제도를 활용하면서 구축해놓은 세 나라에 걸쳐 있는 '트랜스내셔널'한 생활공간이 있다."

### (6장 사할린, 홋카이도, 인천을 오가다 170쪽)

이처럼 사할린 잔류자와 그 가족들은 한국(조선)·일본·러시아의 정체성이 혼재된 중층적인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섬 없이 고민했고, 씩씩하고 의연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해 나갔다. 글을 읽어나가다 보면,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지켜나가는 이들의 모습에, 때로는 슬픔에 공감하고 용기에 감동했다.

## 2019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 참가 후기 언론의 전문성 강화, 한국 역사 및 문화



### (2면의 계속)

안산 <너머>고려인 센터, 대림동 시장 찾아 프로그램 일정 중에는 안산 다문화 거리, 고려인 센터와 대림동 방문이 있었다. 현재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 그 수도 급속히 올라



가고 있다.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 9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전에는 가정의 가장이 일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지만 현재는 온 식구가 (아내, 자녀, 부모까지) 함께 지낸다고 한다. 이 얘기를 작년에 처음 <너머>고려인 지원단체 김영숙 사무처장이 들려주는데 올해도 만나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 러시아, CIS 언론인들은 고려인의 한국으로 이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중국 기자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다음날 우리는 중국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 대림동 시장을 돌아보고 중국 동포들이 1990년 초기부터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는 약 50만 명의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 중국 언론인이 전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좋았다.

또 하나의 특별 일정은 카자흐스탄 피겨 선수 데니스 텐 추모 전시회였다. 우리 연수단은 이 추모 사진전 개막식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 멋진 젊은이가 일찍 떠난 게 슬펐다.

재외동포재단에서 마지막 선물로 연수생들에게 도장 만들기 시간을 주었다. 각자가 자기만의 디자인으로 도장을 만들어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8박9일의 일정이 지났다. 그동안 많이 친해진 우리 모두가, 직업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개인 이야기도 나누었다. CIS 지역 팀은 언론사끼리 연합회를 만들어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모았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한우성이 사장이 참가한 수료식에서 발표했더니 재외동포재단에서 응원하겠다고 했다.

생각보다 좋은 교육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이 재외동포대상으로 하는 언론매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문지상을 통해 이번 연수동안 애써주신 재외동포재단 김나영·오상훈 대리, 여행사의 이수민·이유진, 통역봉사를 한 아스팻팀, 타치야나, 올레그, 아이잔 등 감사를 드린다.

(배순신 기자)

## 경기민예총, 사할린 강제징용 역사 담은 전시회 개최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한국 평택 대안문화공간 루트에서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경기지회 회원들이 사할린 강제징용 역사를 담은 전시회를 연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경기민예총 예술가 26명이 사할린주 유즈노 사할린스크 방문과 추모 공연 진행을 계기로 조성되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4만3000여 명이며 일제 패망 후에

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즈호·카미시카 사건 등 학살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기민예총 예술가들은 사할린에 남아 있는 한인들을 만나 강제징용 현장에서 추모곡과 전통예술공연을 진행했다.

사할린에서 귀국한 경기민예총 예술가들은 사진, 그림 등 장르별 작품으로 과거 강제징용의 아픔과 역사를 호명·승화시키자는 취지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전해졌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тхэквондист Игорь Ким стал вторым на чемпионате Европы

С 9 по 13 ноября в Анталии (Турция) прошел чемпионат Европы по спорту глухих по тхэквондо среди глухих.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составе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ил Игорь Ким, воспитанник СШО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58 кг 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стадии турнира сахалинец был сильне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Турции и Украины. Но в ходе финальных поединков уступил россиянину из Белгорода, вследствие чего стал серебряным чемпионом Европы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 В полуфинальных встречах сборная России одержала верх над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Турции. В финале российская команда также провела блестящие поединки с оппонентами из сборной Украины и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итоге командного зачета Игорь Ким также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в составе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России, — отметил настав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ортсмена, тренер отделения тхэквондо СШО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енис Ким.

Недавно Игорь Ким также победил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Кубок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среди глухих в Таганроге и выполнил нормати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департамент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порту и туризм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1 ноября 2019 г. вышел первый номер газеты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Газета загружена на сайте "Корё сарам" — газета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Главным редактором газеты стал модератор сайта «Корё Сарам» Владислав Хан.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интервью, опубликованное на данном сайте.

## Шагнуть за горизонт К выходу 1-го номера газеты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На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неизбежно возникнут у будущих читателей, отвечает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Владислав Викторович ХАН**.

— Для чего понадобилось издание новой газеты? Ведь коней, как правило, на переправе не меняют?

— Да, не меняют. Но все дело в том, что мы уже переправились. И если символично воспринимать реку как некий рубеж, то берег, на который мы взойшли, можно назвать Интернетом. Произошла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революция, и, естественно, хочется шагать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Много веков назад газета возникла как бюллетень новостей, и мечта каждого газетчика была одна — сжать до предела время от момента события до его освещения. Быстрее и еще быстрее сообщить редакции новость. Бегом, на лошади, телеграфом... Возникли вечерние газеты, чтобы освещать дообеденную хронику. Дошло до того, что прямо во время печатания газеты, останавливали ротационную машину, чтобы вставить свежую ва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том появились радио, телевидение — эти величайшие изобретения предрекали смерть бумажным носителям информации. Но, нет, они оказались живучими, потому что адаптировались к новым техническим веяниям и видоизменялись.

Сейчас наступила эпоха интернета и газета, по своему, должна ответить вызову времени. Оставаясь бумажным изданием, сохраняя традиции и авторитет печатного слова, газет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Интернете, рассказывая о корейцах Узбекистана всему миру. Надеюсь, ч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авторитета печатного слова и мгновенной реакции читателя принесёт то новое, из-за чего я возглавил газету.

— Расскажите о сайте «Корё сарам», как вы его создавали, что он значит для вас?

— Идея создания сайта пришл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работы над семейной документальной хроникой «Братья Хан», когда в письменном столе накопилось изря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о корё сарам, того материала, который нигде и никогда нам не преподавался. Полученные знания и накопленный материал требовали выхода — так родилась идея, затем уже реализация. По мере развития сайта обнаружил, что у нас есть не только своя история, но и своя культура, литература, общественная жизнь и всё это многообразие, причём даровитое, стало появляться на страницах сайта и постепенно, сайт из личной странички стал превращаться в общекорейский корё-сарамовский сайт, которому уже десять лет.

— Сильно ли изменится газета?

— Изменения будут. Но будем стараться, чтобы неизменным осталось одно — читабельность. Например, чем всегда были интересны газеты? Материалами о людях. А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наша диаспора очень богата. И уже через них — вспомнить нашу историю, осветить современную жизнь, глянуть в будущее. Шагнуть, как говорится, за горизонт.

В новой газете появится разворот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где будет переводной материал номера газеты, а так же, надеюсь, оригинальные репортажи и очерки носителей язык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тал насущной не-

обходимостью в освещении жизни корё сарам. Сейчас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с много и рассказывать о нас самим нужн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деюсь, новая газета станет мостом, между нами — корейцами.

В пользу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газета даёт и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я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Узбекиста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в Узбекистан в апре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Узбекистан и Корея возвели свои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в ранг «Особ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связи с чем, приходят два факта не из большой политики, а из жизни,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о многом. Сейчас в неделю совершаются тридцать авиа рейсов между Ташкентом и Сеулом и все они летают полными, и население с нетерпением ожидает увеличения рейс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двадцать тысяч учеников в Узбекистане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Что из опыта работы сайта будет привнесено в газету?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 обратная связь. Любая редакция придавала этой связи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Мы постараемся держать связь с кажды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подчеркиваю, с каждым. Но надо, чтобы и на местах читатели желали 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качестве вешатых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в.

— Можете чуть подробнее о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миссии газеты?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удем освещать общественную жизнь корейцев, достаточно глубоко будем освещать историю корё сарам, будем публиковать литератур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переводы поэзии и прозы современных писателей из Кореи. Будем рассказывать об обрядах и традициях корё сарам. Охватим и культуру, и спорт во всех их проявлениях.

Чхве Джэхён (1860-1920), Борец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ервый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дер корейцев 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был великим просветителем. «Он считал, что образование и духовность — нужна народу, прежде всего. В каждом селе должна быть церковь и школа, и неустанно следовал этому. На это он не жалел средств, уже тогда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я, что для становления и утверждения нации нужно выращивать элиту — культурную, образованную интеллигенцию».

С тех пор роль просвещения в жизни общества никоим образом не потеряла актуальность.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Шавкат Мирзиёев в Ташкенте на открытии 43-й сессии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рганизации ислам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оизнёс: «Сегодня, когда мир стремительно меняется, возникают все новые вызовы и угрозы стабильности,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народов, как никогда раньше, важно внимание к просвещению, к духовному, нравственному началу, привитие молодежи стремления к знаниям, потребности в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Именно просвещение и образование являются ключом к процветанию народов. Именно просвещение и образование ведут людей к благодеяниям, добру, терпимости».

— Надо ли было менять название газеты?

— Надо. Так принято не только у корейцев — на новый рубеж выходить с новым наименованием. Но все, что было лучшее до этого, берется с собой, ибо это опыт,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нам лучше понять и ответить на извечные вопросы бытия: кто мы, откуда, куда идем?

Владимир Ким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570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Мун Чжэ Ин: Саммиты со странами АСЕАН и Меконга - шаг в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южной политики

Специальный саммит РК-АСЕАН, а также саммит РК-страны Меконга, которые откроются 25 ноября в Пусане - важный шаг в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южной полити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12 ноября на состоявшемся в Пусане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о его словам, новая южная политика - это ключевой компонент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ыделил два момента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отличающих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 предыдущего. Это стремление к раз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методами и расширение горизонтов внешних отношений за пределы четырёх крупнейших соседей и союзников в сторону АСЕАН.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поддержать предстоящие саммиты в Пусане, учитывая их важность для будущего РК.

## КНДР потребовала от США исполнения сингапурски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Причиной отсутствия прогресса в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является провокацио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Ш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остоя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НДР при ООН Ким Сон, выступая 11 но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Он сказал,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очень мало продвинулись после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ингапуре, а напряжё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охраняется. Ким Сон отметил, что ключом к укреплению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олуострове является выполнение положений совместного заявления лидеров КНДР и США, принятого в Сингапуре. По словам Ким Сона, КНДР прилагает активные усилия, чтобы установить прочный ми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оздерживаясь от испытаний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пусков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уже более 20 месяцев. Ким Сон обвинил МАГАТЭ в незнании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МАГАТЭ Корнел Ферута заявил на заседании, что ядер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НДР вызывает серьёзн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 Консорциум HDC - наиболее предпочтительный претендент на покупку Asiana Airlines

Консорциум во главе со 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ей HDC Hyundai Development назван предпочтительным претендентом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омпании Asiana Airlines. Её нынешний владелец Kumho Asiana Group продаёт свою 31-процентную долю в Asiana Airlines вместе с шестью филиалами авиакомпании, включая бюджетных перевозчиков Air Busan и Air Seoul. Швейцарский финансовый конгломерат Credit Suisse,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ведущим менеджером сделки, выбрал консорциум HDC-Mirae Asset Daewoo в качестве наиболее предпочтительного претендента на покупку из трёх кандидатов. Два других кандидата - консорциум Aekyung - Stone Bridge Capital и консорциум в составе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улучшения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KCGI) и финансовой компании BankerStreet из Гонконга. Стоимость 31-процентной доли акций Asiana Airlines составляет 343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цене закрытия биржи 11 ноября. Консорциум HDC-Mirae Asset Daewoo предложил 2 млрд 100 млн долларов. Долги Asiana Airlines финансовым учреждениям составляют 2 млрд 300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ичём порядка 400 млн долларов должны быть возвращены до конца года.

## 20 ноября в Сеуле начинается акция «Градусник любви к ближнему»

С 20 ноября по 31 янва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17 городах и провинциях РК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под названием «Градусник любви к ближнему». Организатором акции является общественна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ранэ ёльме». На этот раз организаторы акции по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цель собрать 425 млрд 700 млн вон или примерно 365,5 млн долларов. Вс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помощь одиноким, изолированным от общества людям, на укрепление мер борьбы с бедностью, решение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В Сеуле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зданием столичной мэрии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огромный градусник, который отображает собранную сумму. Как только удаётся собрать 1% от намеченной суммы «температура» повышается на 1 градус.

(RKI)

Интервью с YESASIA:

## LANA — какво это быть иностранным соло-айдролом в Корее?

**LANA**, или русский айдрол, как многие ее называют, дебютировала на корейской сцене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покорила своим обаянием сердца многих, а клип на ее дебютную песню собрал более миллиона просмотров. **LANA** — первый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й айдрол, кто дебютировал на корейской сцене соло. Встречайте эксклюзивное интервью **LANA** специально для YesAsia!

**Можно сказать, вы некий феномен на корейской сцене. Еще до вашего сольного дебюта k-pop комьюнити уже наблюдало за деятельностью иностранцев на корейской сцене, но именно вам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потрясающих результатов. Расскажите, как вам это удалось?**

Мм... Даже не знаю, как ответить на этот вопрос. Я усердно тренировалась, изучала танцы и вокал, работала над своим корейским — то, что обычно делают все трейни. Я всегда стараюсь показать себя такой, какая есть. Мне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моим фанатам и многим людям нравится такая я!

**Благодаря вашему невероятному обаянию и стильному звучанию,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у вас появилос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клонников, которым интересны и личные аспекты вашей жизни. Расскажите нашим читателям о себе, вашей семье? Откуда вы родом?**

Спасибо за комплимент! Я благодарна всем, кому нравится мое творчество. Я родилась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в небольшом городе Поронайск. Жила с бабушкой, дедушкой и собакой Барсом.

**Всегда ли вы мечтали стать айдролом? Сколько лет вы уже живете в Корее?**

Вначале, когда я узнала о Корее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чала изучать язык, у меня и мысли не было стать айдролом. Мне нравился k-pop; музыка и драмы помогали мне в осво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 училась в школе искусств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хореография», и, возможно, любовь к сцене у меня появилась еще тогда. Позднее я стала делать каверы на k-pop с друзьями и еще сильнее погрузилась в этот мир. Приехав в Корею в 2014 году, по случай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я попала в группу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выступали на улицах с танцами. Тогда таких групп было немного, сейчас же улич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на Хондэ — это почт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ь Сеула. Тогда мне было очень весело. Иногда, после выступления, я получала визитки от людей из разных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агентств. Но я была не уверена в себе, поэтому просто не обращала на это никакого внимания.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я решила и пошла на прослушивание. Попала в компанию и стала тренироваться, и тогда поняла, что это то, чем я хочу заниматься в жизни. Я живу в Корее уже 5 лет.

**Наверное, вы много раз слышали фразу о том, что в вашей внешности есть что-то восточное. Присутствуют ли у вас корейские корни?**

Моя внешность — это отдельная тема. Когда я говорю, что русская, никто мне не верит. Моя мама русская, папа наполовину татар. Я похожа на них обоих, но разрез глаз у меня восточный. Папа сказал, что его бабушка имела такой. Я сама не знаю, почему я так выгляжу. В детстве я стыдилась того, как выгляжу. Доходило до того, что надо мной иногда даже издевались в школе из-за внешности. Сейчас же считаю, что она делает меня уникальной, я стараюсь думать позитивно.

**У вас замечательное произнош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Как вам удалось так хорошо выучить язык?**

Сложный вопрос. Я всегда любила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но считала, что они сложные и я просто не смогу выучить хоть что-то. В школе больше всего любила урок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нравилось повторять произношение за актерами, когда смотрела иностранные сериалы. Сначала я не могла привыкнуть к корейскому, у нас не заладилось. Но, когда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стала жить в этой среде, то начала впитывать всю информацию, как губка. Моей целью было вы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за год, сдать TOPIK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6 уровень и поступить в кор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 я это сделала. Как сказал Джобс, надо всегда быть голодным, чем голоднее ты, тем больше и быстрее ты что-то учишь или делаешь. Я была очень голодная, когда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Как вы думаете, это как-то повлияло на то, что корейская индустрия развлечений вас тепло приняла?**



Думаю, да. Я считаю, что знание языка — это уважение к стране и людям, которые живут там. Как ни как, моя работ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вязана с языком, и хорошее знание — это важная ее часть.

**Насколько тяжело было отделиться от привычной жизни в родной стране и переехать в Корею? По чему до сих пор скучаете?**

В самом начале, признаюсь, мне было очень сложно. Я думала уехать обратно в Россию, и это было не раз. Я сдала ЕГЭ и даже могла бы поступить в росси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без проблем. Но тогда, мне было бы стыдно перед бабушкой и дедушкой за то, что я так легко сдалась, что я проиграла самой себе. Поэтому я продолжала учиться. Прошло 5 лет, НО Я ДО СИХ ПОР КАЖДЫЙ ДЕНЬ ХОЧУ РУССКОЙ ЕДЫ! Окрошка, борщ, сметана с творогом, жареная картошка, русские торты, хлеб... они мне снятся!

**Что самое сложное и самое крутое в жизни в Корее. А также в карьере айдроло, на ваш взгляд? С как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вам каждый день приходится сталкиваться? А что радует больше всего?**

Жизнь в Корее кипит. Здесь очень быстрый темп, мне это нравится. Есть много видов развлечений, поэтому всегда можно найти, чем заняться. Самое сложное — это еда,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и культура. Россия и Корея очень разные. Разный менталитет, разная ед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 это делает первое время жизни здесь очень трудным для вас. Жизнь айдроло... думаю, что каждодневные тренировки забирают очень много энергии. С утра до позднего вечера, каждый день в зале, большую часть времени одна. Это иногда угнетает.

**У вас был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ий промоушен. Расскажите несколько секретов о закулисной жизни музыкальных шоу. Я слышала, что артистам приходится записываться по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равда ли это?**

Да, правда. Много чего влияет на время записи. Бывает, что вы заканчиваете после одного раза, а бывает, что прогоняют репетицию по 5 раз. При съемках шоу стоят по 6-7 камер, большинство которых движутся, и на каждой загорается маленькая красная лампочка — означает, что сейчас эта камера главная. Думаю, для тех кто дебютирует, смотреть в камеру самое сложное, это целое искусство. Это умение накапливается с опытом.

**Удаётся ли общаться с другими айдроломи? Какие они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У меня есть пара друзей, но из-за наших расписаний мы не видимся часто.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обо всех, но мои друзья хорошие.

**С кем вам удалось пообщаться, а может, даже подружиться?**

Моих друзей я узнала, когда была трейни. Во время промоушена я подружилась с группой Purple Back, ибо наш дебют был в одно и то же время, и мы встречались на шоу почти каждый день!

**Расскажите, как проходит ваш обычный день? Сколько часов вы уделяете тренировкам?**

Я встаю, играю со своими кошками, иду в компанию и провожу почти 10-11 часов там. Уроки танца и вокала всегда имеют разное расписание, поэтому точно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Еще я уделяю время для из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Есть ли у вас хобби? Расскажите о них?**

Я люблю компьютерные игры. Overwatch — моя любовь! Если есть время, то я иду в компьютерный зал! Я люблю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читать, смотреть фильмы и учить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Еще люблю смотреть видео по экономике, истории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науке.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л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открылась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Завершился полугодовой ремонт первого педиатр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на у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Для удобства маленьких пациентов и их родителей обновили не только внешний вид учреждения, но и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ли систему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Капремонт в здании 1956 года постройки не проводился уже 13 лет. На основательн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отделения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или около 9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сего же в этом году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приведение в порядок остров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ыросло до 1,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Мы постарались сделать помещения поликлиники уютными. Внутреннее пространство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следними норматив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по первичной медико-с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 отметила главный врач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Татьяна Колба.

Здесь появились колясочная, большая гардеробная и игровая зона для малышей. Перепланировка позволила перенести в новое просторное помещение прививочный кабинет и выделить место для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й служ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центр здорового ребенка.

При входе в лечебное учреждение теперь располагается кабинет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Это позволяет разделить потоки больных и здоровых пациентов. Детям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 острой фазе больше не нужно перемещаться по всей поликлинике.

Еще одним новшеством стал центр здорового ребенка. Здесь можно покормить и перепеленать малыша, а также обратиться с любым вопросом по уходу за новорожденным.

Перестройка коснулась не только внешнего вида лечеб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но и организации его работы. Картоохранилище из регистратуры перенесли в отдельное помещение. А медрегистраторов освободили от обязанности отвечать на телефонные звонки. Справо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теперь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у администратора на входе в здание. Здесь же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прикрепления к медицинскому учреждению.

Совсем скоро в отделении начнет работу кабинет ультразвуковой диагностики, появится кабинет ЭКГ.

Обновленную поликлинику уже успели оценить маленькие пациенты и их родители.

Общая площадь поликлиники небольшая — 3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Между тем, 12 педиатрических участков обслуживают более 10 тысяч маленьких пациентов. Ежедневно здесь готовы принимать до 360 человек.

Вопрос об открыти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филиал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такие отделе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в новых микрорайон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Дальнее и 25 микрорайоне.

## Почти на 4 миллиарда больше получит сахалинско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 2020 году

Вырастут расходы на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медпомощи, охрану здоровья матери и ребенка, лекарстве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ривлечение кадров.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8 ноября на публичных слушаниях по проекту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предстоящие три года.

Сфе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лучит в 2020 году около 24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 на 3,85 миллиарда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По слова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озросше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озволит решить одну из главных проблем островной медицины — очереди в больницах и поликлиниках.

— Пациенты не могут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о двум основным причинам — не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ь работы и нехватка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этому все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должны перейти на формат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Чтобы решить все общие вопросы, нам необходима обратная связь с вами. Для этого создали горячую линию «1-300», запустили «Окна доверия», появились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 сказал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оснащение островных больниц и поликлиник новейш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 КТ и МРТ, аппаратами УЗИ экспертного класса, эндоскопическими и рентгеновскими комплексами.

Н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ближайшую трехлетку будет выделено 12,9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2020 году заверш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нфекционн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в 2021-ом — второго корпуса поликлиники №4 и станции скорой помощ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22-ом —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корпуса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Знач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отрасли позволяет также привлека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врачей.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овали принять на работу 150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итоге, трудоустроили около 240. Столько же предстоит привлечь в 2020 году, чтобы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потребность в медицинских кадрах.

Для врачей действуют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 «подъемные» от 1,4 до 2,6 млн. рублей, выпл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до 3 миллионов) или аренду (до 25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квартиры.

Участники публичных слушаний волновал вопрос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эта статья расход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ырастет на 4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льготе получат около 67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ждет жилищный строительный бум

Если план на 2019 год — 286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то на следующий — 430 тысяч, далее тоже планируется возводить от 400 до 500 тысяч жилья ежегодно. Это позволит в три раза быстрее переселить всех «аварийщиков».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публичных слушаний по проекту трехлетнего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коло 1,5 тысяч семей получат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Почти 300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обеспечат необходимыми коммуникациями под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сего же на пересел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и в целом на развити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на 2020 год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выше 22,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За год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внутридомовые системы, крыши, фасады почти 400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Чтобы свести к минимуму аварии, отремонтируют 26 центральных тепловых пунктов, 28 километров тепловых сетей, около 50 километров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В Смирны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в селе Ильин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 сет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 водозабор.

На публичных слушаниях прозвучал вопрос: почему проект бюджета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котельную в южной ча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сей-

час объявляется конкурс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После этого можно будет оформлять бюджетную заявку. Большая котельная на 50 гигакалорий в час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потребности жителей новых быстрорастущих микрорайонов.

Большой круг вопросов коснул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темпы ремонта дворов, созда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не должны снижаться.

## Единственная на Сахалине птицефабрика наращивает бройлер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АО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сегодня производит 2 тысячи тонн мяса птицы в год.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в 2020 году эти объемы должны вырасти вдвое, в 2021-ом — втрое. Это увеличит доступность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ачественного мяса птицы, а также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более 100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тицефабрика развива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 с 2014 года «Островная» получила более 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убсид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началась масштабн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ейчас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тичников на мясной площадке предприятия. Это шесть корпусов для выращивания бройлерной птицы.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каждого из них будет достигать примерно 360 тонн мяса.

Также строятся помещения для выращивания молодняка от 0 до 90 дней. Здесь уже установили клеточ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емец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корпусе ремонтного молодняка будет содержаться до 90 тысяч цыплят. Это позволит бесперебойно комплектовать другие корпуса — с несушками и бройлерами.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и продавать кур островитянам, желающим заняться птицеводством.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свыше 6 тысяч тонн мяса бройлеров плюс 120 миллионов штук яйца куриного каждый год.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не только мясных тушек, но и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копченостей из птицы. Получается широкая линейка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и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АО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Сергей Добряля.

Бройле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и выпускать в 2016 году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Охлажденное мясо птицы неизменно пользуется высоким спросом у островитян.

Кроме новых птичников,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появится цех откорма. Сейчас питание для островных курочек закупается с материка, используется четыре рецепта откорм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птицефабрике собираются наладить собств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комбикорма,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осемь рецептов для несушек и бройлеров.

Увелич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разится на развитии фирменной торговой сети. Магазины с широким ассортиментом сахалинской продукции уже работают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но и в Долин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ах. Сегодня ведутся переговоры по поводу открытия торговой точки в Ох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растут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местн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руководство региона уделяет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которая призвана создать конкуренцию привозным товарам. На прилавках островных магазинов увеличится количество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ых местных продуктов — с длительным сроком хранения и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Интервью с YESASIA:

# LANA — каково это быть иностранным соло-айдромом в Коре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Касательно дебюта. Ваша песня и видео ряд окунают нас в 80-е. Чья это была идея? Почему выбор пал на такой концепт?

Так как я была первой иностранкой, дебютировавшей в Корее как соло-артист, мы хотели что-то, чего еще не было. Это было самой сложной для нас задачей. Когда я впервые услышала музыку песни, то сказала, что, кажется, это то, что мы ищем. Я написала текст к песне, и мы быстро начали подготовку.

Что вы хотели рассказать своему слушателю через свою песню? Отражает ли она вас? Или в жизни вы другая?

Когда я услышала песню, я представила себе, как я и мои друзья едем на машине вместе и веселимся. Затем ночью, перед костром, мы вместе танцуем и развлекаемся, но там же есть кто-то, кто мне нравится, и я пою песню для него. Представляя все это, я и написала текст. Думаю, что в жизни я не такая актив-

ная. Мне нравится сидеть дома, этакая молодая старушка Лана.

Когда вашим поклонникам ожидать возвращения? Возможно, поделитесь с нами небольшими спойлерами? В каком ключе будет будущая композиция?

Я только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скоро. Я знаю, как все ждут следующую песню, я бы сама хотела поскорее вернуться! Спойлеры... скажу только, что это будет отличаться от Ланы из «Take the wheel». Я усердно работаю, и, надеюсь, вам понравится мое возвращение! Скоро я выложу сюрприз для фанатов, и будет еще много сюрпризов, так что ждите.

Помимо карьеры айдромы, не возникало ли у вас желания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и в ак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не очень часто задают этот вопрос, интересно почему... Желание есть, но когда я смогу попробовать или вообще смогу, я пока не знаю. Сейчас я сосредоточена на карьере айдромы.

Немного философский вопрос, как вы считаете, ваш дебют — это плюс или минус для корейской индустрии развлечений в связи с сильной конкуренцией?

Везде есть свои плюсы и минусы. Скажу так, я думаю, что в этом нет ничего плохого. Если у человека есть шанс продвигаться в Корее, почему бы и нет. Не важно кто ты, иностранец или кореец, важнее какой ты человек, и что ты можешь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людям.

И, наконец,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вашим поклонникам?

Привет, Люминес (название фандома)! Как выживаете? Холодно ли в ваших городах?? В Корее уже похолодало, но мне нравится, и я жду снег. Спасибо вам за то, что вы со мной, что вы поддерживаете меня. Вы — моя опора, поскорее бы вас всех увидеть. Я усердно готовлюсь для вас, и, надеюсь, вам понравится та Лана, которая скоро предстанет перед вами. Еще раз спасибо всем вам! Одевайтесь тепло, много вкусного кушайте и слушайте «Take the wheel»! Вы и я, мы добьемся успеха! Мы все сможем! Ведь мы супер-крутые печенюшки!!

Всем пока! Ваша Лана ~

13.11.2019  
Анастасия Мурасина (YesAsia)

## 카자흐 '피겨 영웅' 故 테니스 텐 추모 사진전 개최

### 테니스텐 재단 주최로 6일부터 11일까지 인사동 갤러리에서 개최

지난해 7월, 25살에 불의의 사고로 요절한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터이자, 구한말 시기에 일제에 항거한 의병장 민공호 선생의 외고손자인 고(故) 테니스 텐 선수를 기리는 추모 전시회가 개최됐다.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 'D10 WORLD'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테니스 텐 선수의 모습, 동료 스케이터들과 지인들의 회고 영상, 그가 직접 찍은 사진, 소품 등 120여점을 선보인다.

기획·주관: 카자흐스탄 테니스텐재단 / 후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7일 오전 11시 오픈식에는 외교부,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올댓스포츠 관계자가 참석하여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주한카자흐스탄 듀센바예프 바캉 대사, 외교부 김대환 재외동포과장, 김연아 선수, 최다빈 선수, 올댓스포츠 및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테니스 텐 선수는 1937년 강제이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정착하게 된 고려인 동포의 자존심이였다."면서 "이번 사진전을 계기로 고려인 선조들의 영웅적 삶과 스포츠 스타였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우리말로 깨닫다]

### 청소의 위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귀찮은 일이 청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일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청소는 선뜻 하고 싶은 일은 아닐 겁니다. 모두 깨끗한 주변을 원하지만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는 주저하게 됨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청소만 잘해도 칭찬을 받습니다. 소학(小學)에서는 물 뿌리고 쓸고 뒷사람을 잘 응대하는 것 즉 쇄소응대(灑掃應對)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았습니다만 생각할수록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쇄소응대(灑掃應對)'만 잘해도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예전에 류시화 선생님이 번역한 책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열풍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즐겁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청소부가 성자가 되는 이야기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제목을 혼동한다는 겁니다. 청소부가 된 성자로 잘못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제목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자는 청소부가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자는 그대로 청소부이기도 합니다. 청소부와 성자와 많은 점에서 닮았습니다. 세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전에 박성배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선생님이 처음 출가를 하였을 때 전국의 선지식(善知識)을 만나러 순례를 떠난 적이 있으셨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적었던 선생님은 다른 절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스승께 여쭙았더니 먼저 인사하고 먼저 청소하라는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가는 곳마다 떠남을 아쉬워하고, 성자라고 칭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청소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쁘게 한다면 그 순간 성자가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가 누구든 기쁘게 먼저 인사를 한다면 그 순간 성자가 되는 겁니다. 쉬워 보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쇄소응대도, 성자가 된 청소부도 모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청소가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대걸레질은 신이나기까지 했습니다. 톰 소녀의 모험을 보면 톰이 펜스를 페인트로 칠하는 일을 맡았을 때 동네 아이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받고 페인트를 칠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페인트를 너무 즐겁게 칠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들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에게는 대걸레 청소가 그랬습니다. 주변(週番)을 하거나 당번(當番)을 할 때 대걸레 청소가 재미있어서 다른 친구의 당번을 대신 서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가족이 전부 미국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간 보통의 가족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칠고 힘든 일을 하게 되죠. 저희 가족도 빌딩을 맡아서 청소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도 1년 반 정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걸레질은 물론이고 새로 시도한 진공청소기도 재미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떨 때는 7시간 정도를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에 갈 수 있었기에 굳이 쉬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청소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고, 지금 제 삶의 가장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청소를 멀리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청소는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청소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나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저는 청소를 좋아하던 제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더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떨 때는 힘들면 더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흠어진 기분마저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좋아하면, 깨끗해진 주변을 좋아하면 성자가 된 청소부가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Ариран 2019

проводимый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связи межд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Дата 16 ноября 2019 года, 16:00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한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2019 사할린아리랑제

일시 2019년 11월 16일 오후 4시

장소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공동주최 (사)한겨레아리랑연합회/사할린주한인협회 · 주관 아리랑스프링 · 후원 문화재단/한국문화재단/아리랑학회/(주)중앙티아이나농성향의민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Ежедневные родительские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заботы не мешают им продолжать активно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и приобщать к здоров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двух своих сыновей. Буряковы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участвуют в жизни родного села Кировское, не пропускают ни од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Теперь копилка их семейных достижений и реликвий пополнилась дипломом за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Сельская семья" и почетной книгой, специально изданной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Семья года — 2019" с историями семей-победителей. И конечно же, у всей семьи остались незабываемые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поездки в Москву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соцзащиты.

##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들, 우주 관리자와 신경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꿈꾼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미래의 직업' 창작 경연이 개최되었다. 유청소년 창작회관 무대에 오른 8학년생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미래에 요구되는 직업 전문성을 발표했다. 경연은 직업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미 익숙한 직업인 소방관, 교사, 의사, 배우 등 학생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곧 실현될 수 있는 직업들을 선보였다. 발표한 전문 직업 중에는 로봇 윤리 전문가, 신경 프로그래머, 창작 코치 등이 있었다. 학생들의 특별한 곳인 우주와 관련된 - 우주 관리자, 우주 가이드와 건설- 직업을 주제로 다루기도 했다.

"2020년부터 이러한 직업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술공학자가 되고 싶다. 이 분야는 내게 흥미롭다. 우주는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3 김나지야의 8학년생 김 드미트리가 언급했다.

경연대회 결과로 1위는 제 5호 학교 팀, 2위는 제 1호 리제이, 3위는 푸쉬킨 제1 김나지야가 차지했다. 또한 10개의 학교가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상장, 영화표, 트램폴린 센터 이용권, 동물원 입장권, 활동교실 이용권 등을 받았다고 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 Школьник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ечтают стать космоменеджерами и нейропрограммистами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Профессии будущего"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Школьники 8-х классов на сцене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и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оказали, ка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о их мнению, станут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в будущем. Конкурс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фессий.

Помимо уже привычных пожарных, учителей, врачей и актеров, дети показали профессии, которые еще не так широко известны, но скоро могут стать актуальными. Среди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 специалист по робоэтике, нейропрограммист, тренер творческих состояний. Особое место школьники уделили теме профессий, связанных с космосом — космоменеджер, космический гид и архитектор.

— На эти профессии можно будет выучиться, начиная с 2020 года. Я бы хотел стать инженером, потому что мне интересна эта сфера, ведь космос — целый неизведанный мир, — поделился Дмитрий Ким, ученик 8а класса гимназии №3.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а команда СОШ №5, второе — лица №1, а третье досталось гимназии №1 имени Пушкина. Кроме того, 10 школ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в различных номинациях. Победителям вручили грамоты, билеты в кино, батутный центр, зоопарк, а также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мастер-класс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 유즈노사할린스크, <모어>

### 유·청소년 컨퍼런스 개최

이번 컨퍼런스는 사할린주 북방 소수민족언어인 우일타어와 님호어를 구사하는 어린 대가들을 연합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 포로나이스크, 오하, 노글리키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사할린 섬>체호브 책 박물관에 모였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박물관연합회와 사할린주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할린 에너지' 회사가 후원했다.

이런 형식으로 개최된 컨퍼런스는 작년에 처음 조성된 가운데 교육적인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매해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참가자 수보다 실제적으로 민족 고유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였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몇 달에 걸쳐 고유어를 말하는 어른들과 작업하면서 우선 러시아어로 작성해 민족 고유어로 번역했다.

올해는 유엔 총회가 정한 국제 토착어의 해로서 소수민족의 정신적 유산을 보존하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명문화하여 그 결과 제 2회 러시아 극동지역 북방 소수 민족 원주민언어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에 참가한 사할린의 대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차세대 양성'에 대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체호브 책 박물관 측은 어린 참가자들과 프로그램 진행에 상상력을 발휘해 다양하게 표현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컨퍼런스의 중심 프로그램인 발표뿐만 아니라 체호브의 '완카' 동화를 소수 민족 고유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에루지트'놀이로 언어 탐험과 학생들은 우일타어와 님호어 글자로 단어를 익혔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детско-юнош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одная речь"

Конференция объединила юных знатоков языко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уильтинского и нивхского. В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огликского, Охин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Ассоциация музе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Впервые в таком формате она состоялас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то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опыт показался удачным, и было решено сделать конференцию ежегодной традицией. И не количеством участников ценно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но тем, что оно показало практические результаты изуче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Готовясь к конференции, школьник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работали со старейшинами — носителями языка, писали доклады — сначала на русском, потом переводили.

Нынешний год объявлен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ей ООН Международным годом языков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что обусловило еще большее внимание к проблемам сохранения духовного наследия этносов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проведение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их как 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на языках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Ф. На нем сахалинских знатоков было немало, но он же еще раз показал, что вопрос об "омоложении кадров" нельзя откладывать — чтобы не прервалась связь времен.

Работники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с фантазией разнообразили программу времяпровождения юных участников. Это не только доклады, которые стали сердцевинной программы конференции, но 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 по переводу чеховского рассказа "Ванька" на язык малого этноса, и игра "Эрудит", в ходе которой ребята складывали слова из букв нивхского или уильтинского язык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